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기아차 '올 뉴 K3' 시승기

# 경차급 연비·중형급 만족감... '올 뉴 K3' 생애 첫 차로 딱이야

공인 연비 15.2km/L로 경차 차량 압도 중형차 수준의 인테리어·주행감성 눈길 첨단사양 탑재...중중형 세단의 새 기준

**자동차** 2030세대가 생애 첫 차를 고민할 때 선택지는 크게 경차나 준중형 세단, 또는 소형 SUV 정도이다. 요즘의 분명한 대세는 소형 SUV지만 기아차 올 뉴 K3는 '준중형의 부활'을 외치며 야심차게 등장했다. 어떤 매력을 갖추고 있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경기도 포천시 '고모리 691' 카페까지 왕복 170km 구간에서 올 뉴 K3를 시승했다.

●완성도 높은 실내외 디자인

국산 준중형 세단의 디자인 완성도와 주행 성능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기아차 K3 역시 한 단계 진화했다.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 후, 측면 어디서 봐도 딱히 아쉬운 구석이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후면 디자인은 중형 세단처럼 느껴질 정도로 넓고 안정된 느낌을 지녔다.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과하지 않으면서 현대적인 분위기도 지녀 2030세대에게 잘 어울린다. 실내 인테리어의 완성도와 사용한 소재의 품질도 중형 세단 못지않다.

이날 시승한 차량은 1.6가솔린 노블레스 트림으로 고급형 클러스터와 스마트 네비게이션 등을 갖춰 실내만 보면 준중형인지 중형차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급스럽다.

●작심하고 연비주행할 결과? 무려 22.3km/L

올 뉴 K3의 가장 큰 매력은 파워트레인의 변화에 따른 뛰어난 연료 효율성과 개선된 주행 감성이다. 우선 차세대 1위트레인 '스마트스트림 G1.6' 가솔린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IVT(Intelligent Variable Transmission)' 변속기를 갖추고 있다. 이 엔진에는 현대기아차가 독자 개발한 듀얼 포트 연료분사 시스템(DPFI)을 적용해 기존 싱글 인젝터 대비 연소 효율을 대폭 개선했다.



구분	올 뉴 K3	
전장(mm)	4,640	
전폭(mm)	1,800	
전고(mm)	1,440	
축거(mm)	2,700	
엔진	형식 스마트스트림G1.6	
배기량(cc)	1,598	
	최고출력(ps)	123
	최대토크(kg·m)	15.7
복합 연비(km/L)	15인치	15.2
	16인치	14.4
	17인치	14.1

올 뉴 K3는 스마트스트림 G1.6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IVT 변속기를 탑재해 15.2km/L라는 경차급 연비를 실현했다. 여기에 젊은 감성의 실내외 디자인과 첨단 편의 사양까지 갖춰 2030세대의 생애 첫 차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기아차

이 엔진에는 현대기아차가 독자 개발한 듀얼 포트 연료분사 시스템(DPFI)을 적용해 기존 싱글 인젝터 대비 연소 효율을 대폭 개선했다.

공인 연비는 15.2km/L(15인치 타이어 기준)이지만 실제 체험 연비는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편도 80km 구간에서 최대 연비를 달성하기 위해 작심하고 연비주행할 한 결과 22.3km/L의

실연비(트림 컴퓨터상의 연비)를 기록했다. 참고로 경쟁 차종들의 공인 연비는 13.5~13.8km/L 수준이다.

도로 제한 속도에 맞춰 정속 주행을 했고, 절반은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으며,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으며 최대한 도로 흐름에 따르는 주행을 한 결과다. 물론 실연비는 운전 습관과 스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하이브리드차량 못지않은 연비를 뽑

아낼 수 있으니, 새로운 파워트레인의 연료 효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 사양 '드라이브 와이즈'도 옵션 선택

연비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가속 성능, 고속 주행 안정성, 정속 주행시의 정숙성 등도 만족스러웠다. 중형 세단에 맞는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근접하는 주행 감성을 지녔다. 무단 변속 기지만 반응은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빠른 편이

고, 추월 가속 능력도 제법 갖췄다. 변속기를 매뉴얼 모드에 놓으면 스포츠 모드로 변경되어 한층 경쾌한 감각의 스포츠 주행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준중형 세단이지만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된 '드라이브 와이즈'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 첨단 사양에 대한 감동도 채웠다. 가격은 1590만~2220만원이다. **포천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더 정속해졌다! 르노삼성 '2019년형 SM6' 출시

전 트림 '차음 윈드실드 글라스' 적용 편의사양 기본화·옵션 선택폭 넓어져

르노삼성자동차가 상품성을 강화한 2019년형 SM6를 출시했다. 르노삼성의 중형 세단 SM6는 르노삼성차의 부활을 이끈 상징적인 모델이다. 경쟁 차량들보다 고급감을 더 높여 중형과 준대형 세단 사이에 포지셔닝한 전략이 제대로 성공했다. 2019년 SM6도 이런 특성을 살려 업그레이드 했다.

모든 트림에 공통으로 '차음 윈드실드 글라스'

를 적용해 정속성을 더욱 강화했다. 자외선 차단 윈드실드 글라스 역시 모든 트림에 적용했다. 두 옵션은 고급차를 선택하는 오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수 항목인데, 이번에 기본사양으로 적용했다. 바디 색상도 고급스럽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보르도 레드 컬러를 추가했다.

주요 편의 사양도 강화했다. 기본형인 SE 트림의 경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편의사양을 충실히 기본화하고 가격인상폭은 10만원으로 억제해 실질적인 고객 혜택을 극대화했다. 겨울에도 따뜻하게 주행할 수 있는 열선 스티어링 휠, 뒷좌석 열선을 추가했으며, 트렁크 하단

에 발을 넣어도 뻘뻘 트렁크 리드가 열리는 매직 트렁크, 하이패스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의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에 RE 트림에만 탑재했던 첨단 옵션을 2019년형 SM6 LE와 SE 트림에서도 선택 가능하도록 한 것도 큰 변화다. 이번에 LED 퓨어비전 헤드램프, 19인치 휠 및 노면의 감쇄력을 제어하는 액티브 댄핑 컨트롤(ADC)기능,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 및 주차 조향보조 시스템(BPA)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사양을 추가하면서 가격은 트림에 따라 이전 대비 5만~40만원 인상됐다. 파워트레인별 가격대는 2.0 GDe 2450만~3100만원, 1.6 Tce 2840만~3270만원, 1.5 dCi 2600만~3030만원, 2.0 LPG 2060만~2785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2019년형 SM6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

현대차, 평창패럴림픽 성화봉송 함께 달린다 현대차가 9일부터 시작되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후원 활동을 시작했다. 2일부터 8일간 전국 5대 도시에서 800명의 주자가 성화와 함께 달리는 성화봉송 릴레이에 현대차 동호회원, 시민 등으로 구성된 106명의 현대차 주자가 참여해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최고 인기종목으로 떠오른 '컬링'을 모티브로 한 전국민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라이트업 컬링'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쌓인 기부 포인트는 휠체어컬링 국가대표팀 지원, 컬링 관련 후원 기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평창 올림픽플라자에 마련된 수소 체험관 '현대자동차 파빌리온' 등을 통해 경기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살을 빼는 것보다 찌는 것이 더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살 안찌 걱정되는 분~**

나이가 들면서 살이 조금씩 빠지고 배도 약간 나오는 것이 웬지 안좋아 보이고 흉터가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마르는 사람도 있다. 다른 이들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고 주위가 산만하여 성적이 처지고 특히 편식으로 인한 영양이 고르지 못하거나 성장이 빈약하다고 호소하는 부모님은 아이에게 고른 영양섭취와 함께 '살찌오'를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살찌오'는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성분과 꼭 필요한 성분들로 흡수가 잘 되어 빠르게 작용한다.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허약하고 매시 쉽게 지치는 등 기초체력이 없는 사람들과 이유없이 마르는 사람들은 '살찌오'를 꼭 한번 드실 것을 권한다.

▶ 잘못된 식습관이 마르게 한다  
 나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찐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 식습관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양소만 과도하게 먹거나 부족하게 먹게되어 적절한 체중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채식 위주의 저칼로리 식사만 하는 경우라면 체중 증가는 당연히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육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어릴 때 야마 현식하지 말라,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모든 영양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건강한 체중 유지의 지름길이다.

▶ 유전적 특이성이 전체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잘 먹어도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의 작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의 가족을 살펴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통 체중에 속하는지 마른 체형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부모가 많이 먹어도 살이 안찌는 체형이라면 자녀에 속하는 사람 또한 유전적인 특이성에 의해 마른 체형일 수 있으나 유전적인 특이성은 후천적인 식습관 및 생활 습관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는 가장 큰 내부요인  
 신경이 예민해서 살이 안찐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텐데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분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공기가 된다고 하여도 충분히 섭취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살이 찌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약하거나 체력이 빈약하면 밖에서 자신이 없는 법! 당당한 체력이 부러우십니까? 흡수가 빠른 체중증가제 '살찌오' 체중늘고 힘도 솟아!

**salzzio**  
 특허 제10-1314762호 www.sunsea.kr  
 서울사무소: 02-522-2710  
 찾아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무료상담전화: 1661-1224  
 입금계좌: 농협 356-1272-3414-43 씬모아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 대할인 행사**

"저잡음 회로 설계로 잡음이 적으며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대할인 행사**

2018년 최신제품

본 제품은 의뢰기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십시오!!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건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작동, 급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 사용  
 10단계 음향조절기능

이렇게 사용하세요

- ▶ 기류, 친구와의 대화시 큰소리가 필요할 때
- ▶ TV 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 ▶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을 때
- ▶ 상담시 상대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을 때
- ▶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를 크게 듣고 싶을 때
- ▶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 ▶ 종교행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1회 충전시 24시간 연속사용!  
 배터리 전량 확인가능 내장 하울링 방지 기능 내장

**VA3000**

\*이런 분은 행복되지 않습니다. 체험 후 구입하신분! 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일이 경과하신 분. 제품보호용 필름을 제거하신 분

www.sunsea.kr

무료상담전화: 1644-2464  
 서울사무소: 02-522-2710/1600-3851

입금계좌: 농협 356-1272-3414-43 씬모아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무료체험 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